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 윤리

이은선(안양대)

들어가는 말

1991년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때 미국의 역사학자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 때까지 계속되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붕괴에 직면하여 앞으로 자본주의의 독주로 말미암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의 심화를 우려하였다.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 경제는 급속히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로 기울어지면서 세계화를 표방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국제 사회에 강요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무역 장벽의 제거를 통한 자유 경쟁을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997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영향은 대한민국을 거쳐 러시아,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를 논의하

기 위하여 1999년 2월 초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다보스 포럼은 “인간적인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주제를 내걸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최근 10년간의 국제 경제의 흐름은 인간의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떠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simus*이란 논문에서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신의 형성과의 관계를 논하였다. 베버는 개신교 중에서도 17세기 영국의 칼빈주의의 영향을 통하여 근대자본주의 정신, 즉 세계내적 금욕주의(inner-weltliche Askese)에 바탕을 둔 근검, 절약, 합리성을 토대로 이윤을 직업적으로 추구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정신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 그는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의 배후에 칼빈과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정론은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했던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현세적인 직업에서 열성적으로 성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베버의 주장이 제기된 후에 그의 가설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으며 아직도 찬반의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그 이후의 논쟁 과정에서 과연 칼빈이 자본주의의 형성에 기여하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논쟁점으로 대두되었다.³⁾

1)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Th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simus*, 권세원역(서울: 휘문출판사, 1972), p. 288.

2) *Ibid.*, p. 336.

3) 웨버의 주장이 제기된 후에 트뢰츠크(Ernst Troeltsch)는 《기독교회의의 사회적 교훈》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 trans, Olive Wyon(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0)에서 칼빈주의의 직업관과 예정의 확증을 위한 금욕적 노동, 소득 획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교훈이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베버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 사상을 중심으로 과연 개혁주의 신학이 초기 단계와 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로 칼빈과 청교도들의 소명관을 연구하고자 한다. 베버가 칼빈주의의 소명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한 반면에,⁴⁾ 로벗슨을 비롯한 학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였다.⁵⁾ 그러므로 칼빈과 영국 청교도들의 소명관이 중세의 소명관과 어떻게 달라졌고, 루터의 소명관에서 발전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p. 645), 칼빈주의에서는 자본가의 청지기직을 강조하여 축적한 자본을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회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기독교 사회주의의 요소를 품고 있다고 보았다.(p. 622) 토니(R. H. Tawney)는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Pengin Books, 1926))에서 베버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비엘러(André Biéler)는 《칼빈의 경제 사회 사상》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Geneva: Georg, 1959))에서 베버의 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베버가 주장한 것은 칼빈의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의 사상과 다른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이라 주장하고, 칼빈의 경제 사상은 “각자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로 요약될 수 있는 인격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p.337) 비엘러의 뒤를 이어 그레이엄은 《건설적 혁명가 칼빈과 그의 사회경제적 영향》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Richmond: John Knox Press, 1971)에서 칼빈은 “16세기 중부 유럽에 조그만 복지국가를 탄생하는데 공헌했으며, 이것은 토니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기독교 사회주의였으며”(p. 193),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탄생은 칼빈주의의 세속화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찬반논쟁의 과정과 입장을 정리한 책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아이젠스타트(S. N. Eisenstadt)는 1968년에 *The Protestant Ethic and Modernization: A Comparative View*(London: Basic Books, Inc.)를 편집하여 베버의 명제 자체의 분석, 유럽과 미국에서 이 명제의 적용, 유럽 밖에서 이 명제의 적용 등을 다루었다. 1973년에 Robert Green은 *Protestantism, Capitalism and Social Science: the Weber Thesis Controversy*(London: D. C. Heath and Company)에서 찬반의 입장과 이 명제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취급하였다.

둘째는 개인의 재산권과 소비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과 청교도들이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인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오히려 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사회주의 내지는 공동체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는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의 교훈의 신봉자들이 주로 상업 계층과 수공업 계층에 수용되어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되는데, 상공업과 이러한 분야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과 이자 수취의 문제에 대한 칼빈과 청교도들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네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그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의 사상들을 검토함으로써 개혁주의 사상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칼빈과 그의 후계자인 청교도들의 경제 윤리를 밝혀보고 그들의 사상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내포하고 있

이후에도 리이드(W. Stanford Reid)는 “존 칼빈은 자본주의의 아버지인가?”(John Calvin: the father capitalism, Themelios, vol. VIII, no 2(January, 1983))이란 논문에서 칼빈의 중심교리는 예정론이 아니라 이신칭의이므로 베버의 연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가난을 나태의 죄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집사들을 통하여 도와주었으므로 자본주의의 아버지일 수 없다고 하였다. 윌리스(Ronald S. Wallace)는 《칼빈, 제네바 및 종교개혁》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에서 칼빈의 교훈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원리와는 상반된다고 주장하였다(p. 94).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는 칼빈의 경제사상의 한 측면의 특성을 강조했으나, 부스마는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한 측면과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 양자는 통일된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William Bouwsma, 《존 칼빈: 하나의 16세기의 초상화》 John Calvin: A Sixteen Century Portra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196-203).

- 4)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p.328.
- 5) 로벗슨은 막스 베버의 분석은 그가 해당 시기에는 올바른 것이지만, 그의 잘못된 소명 개념의 역사적인 변화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종교적 관념의 변화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교회가 스스로 적응, 동화해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종교적 관념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Green, *Protestantism, Capitalism, and Social Science*, pp. 63, 69)

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 16-17세기의 경제 상황

제네바의 칼빈이 활동하던 16세기와 영국의 청교도들이 주로 활동하던 16-17세기는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었는가? 일반적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해된다. 아직은 중세적인 체제와 사고에서 분명하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중세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체제로의 변혁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업 세계에서 중세의 장원제가 붕괴하면서 농노들의 신분이 해방되어 농민이 되었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과 수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전해 가던 시기였다.⁶⁾ 장원제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적인 중세의 경제 체제가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면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이 시작되었고 원거리 무역의 중심지들에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거리 무역이 진행되면서 발전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던 제네바였다.

칼빈이 활동하게 되는 제네바는 유럽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하여 15세기에 이미 국제적인 무역 시장이 열렸다. 이 시장은 사보이 공의 후원을 얻으면서 일년에 네 번 열렸는데 한 번에 12일 씩 열렸다. 제네바는 이 무역 시장을 통하여 큰 수입을 올렸고 유럽의 은행가들이 이곳에 지점을 설치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후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이러한 번영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1460년 대 이후 쇠퇴하였다.⁷⁾ 그리고 이 시기에 제네바의 자체적인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던

6) 영국에서는 1381년의 농민 반란 시기에 소작농 계급은 죽은 제도였고 임금 노동자가 소작농보다 많았다.(Stephen Innes, "Puritanism and Capitalism in Early Massachusetts," in *Capitalism in Context*, ed. John A. James & Mark Thoma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94.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상업 활동으로 돈을 벌었던 구 귀족들이 몰락하고 16세기 이후에 새로운 소상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소상인들은 좀더 진취적이었으며,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부를 차지하고 있던 가톨릭 세력이 제네바를 떠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세력에 포위됨으로써 상업 활동이 위축되고 식량 부족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 제네바 시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곡물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사보이공에 의해 세 방면에서 곡물 수입이 금지되어 제네바는 동쪽의 스위스 연맹과 거래하지 않을 수 없어 바젤과 베른이 참여하고 있던 스위스 연맹에 가담하였다.⁸⁾

종교개혁 이후에 위축되었던 제네바의 상공업은 칼빈의 개혁 활동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 세대 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피난민들은 제네바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던 지방 도시에서 국제적인 상업과 재정 중심지로 부각시켰다.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인쇄, 직물, 금속 공예, 보석 가공, 시계 분야에서 이 도시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인쇄업은 칼빈의 생애 동안 제네바의 경제 부흥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⁹⁾ 이들은 성경, 시편 찬송, 논쟁서와 다른 작품들을 출판했는데, 프랑스로 수출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인쇄업의 발전은 잉크와 종이 생산 같은 연관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직물업은 1540년대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구빈원을 통하여 도입되어 발전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¹⁰⁾ 이와 같이 제네바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세력의 포위 속에서 주민의 식

7)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Pennsylvania, 1983), pp. 171-172.

8) *Ibid.*, pp. 191-2.

9) *Ibid.*, pp. 221-2.

10) *Ibid.*, pp. 226-7.

량을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반면에 박해받는 개신교들이 제네바로 이주해 옴에 따라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신대륙의 발견과 은의 유입에 따른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6세기 전반에 대외 무역이 크게 발전하였고 가내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양모로 짠 직물이 주요 수출품으로 원료인 양모를 대치하게 되었으며, 상업이 의존하던 금융 조직이 나타나게 되었다. 양모를 사용하는 직물업이 발전하게 되자 지금까지 공동 경작을 하던 농지에 토지 소유자들이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기르는 엔크로우저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서 146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540년대 이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삶을 터전을 잃게 만드는 엔크로우저운동을 제지하려고 여러 번에 걸친 입법을 하였으나 별로 소득을 거두지 못하였다.¹¹⁾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 국교회는 이러한 발전을 억제하려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였을 뿐 그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이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 의회는 이자 수취에 대하여 이미 1571년 이후에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를 받는 대부를 인정했으나, 영국 교회는 여전히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¹²⁾

이와 같이 칼빈이 활동하던 제네바와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영국은 중세 말기에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경제 환경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대 변동기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스콜라주의의 경제관은 새로운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등장하여 그들의 이론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준 인물이 칼빈이었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청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1)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p. 141-3.

12)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164.

Ⅱ.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사상의 신학적 원리

칼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제네바를 개혁하였던 2세대 종교개혁자였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 경제를 비롯한 제네바에서 수행된 그의 모든 개혁 활동은 그의 신학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경제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 사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빈은 근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 성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정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은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¹³⁾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는 일반 섭리를 말하였다 (*Inst.* 1.17.2). 동시에 사람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일부 사람과 사회가 회복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원리가 다시 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3권 6장 이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논하는데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지는 것, 내세에 대한 명상과 함께 10장에서는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사용을 구속론의 배경에서 논하여 신앙 생활 속에서 물질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면서 물질 사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를 비롯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13) *Inst.* 3.2.7; cf.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한국신학연구소, 1977), pp. 51-2.

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개혁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경제 사상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상 원리 하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칼빈의 경제 사상은 당시 제네바 사회가 안고 있던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제네바의 경제적인 상황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제네바 시민들의 직업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치 도시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었다.¹⁴⁾ 그러므로 칼빈은 중세뿐만 아니라 루터와는 다른 제네바의 경제적인 상황에 답변해야만 했다. 둘째로 당시 제네바의 경제적인 상황은 주변의 가톨릭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곡물 공급을 위협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제네바 공동체의 전체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칼빈의 경제 사상은 이렇게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근본 원리로 하면서 제네바의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개되었다.

청교도들의 신학 사상도 기본적으로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되었다. 현재 칼빈과 청교도들의 신학적인 입장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펼쳐지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칼빈과 청교도의 신학적인 연속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한다.¹⁵⁾ 양자의 입장이 연속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신학방법론으로 청교도들이 개혁과 스콜라주의에 속하여 더

14) Brend Möller, *Imperial Cities and the Reformatin*, ed and trans. H. C. Erik Midelfort and Mark U. Edwards, Jr.(Durham: The Labyrinth Press, 1982), p.114; Alister McGrath, 《종교개혁 사상 입문》, 박종숙 역(성광문화사, 1992), p. 34.

15) 이은선, “칼빈과 칼빈주의 논쟁,”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2집(1997), pp. 153-186.

웨버의 입장을 명제를 비판하고 칼빈의 입장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학자들은 비엘러, 그레이엄 등을 중심으로 칼빈과 칼빈주의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그들의 논의를 전개한다.

육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성경을 근본적인 신학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영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물론 청교도들의 경제사상은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17세기의 영국의 더욱 자본주의 방향으로 진전된 경제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제 상황은 제네바의 절박한 경제 상황보다는 진전되어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도 유지되어 있었으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전하고 있었고 유럽의 경제권을 장악해가면서 가장 발전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¹⁷⁾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살펴보자.

Ⅲ. 칼빈과 청교도들의 소명 사상

중세 가톨릭 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소명 사상은 성속 이원론이었다. 중세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든 공적 원리에 입각하여 세상의 직업은 속되다고 보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 생활에 정진하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속 이원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 루터였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내세움으로써 수도사들이 일반인들보다 낫다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무너뜨렸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세상에서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으로는 동등해 지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인 것이다. 루터는 이러한 만인제사장론에 입각하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으로는 동일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Beruf, officium)만이 다르고 보았다.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16)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Prolegomena to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pp. 102-106.

17)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p.179-196.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루터의 소명 사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업과 신분 구조의 변화를 거부하여 오히려 독일 사회의 전통적인 직업 구조와 사회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었다.¹⁹⁾ 특별히 루터가 농민전쟁 이후 영주들과 손잡고 종교개혁을 진행함으로써 독일은 중세의 봉건적인 농노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칼빈도 기본적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세의 성속 이원론을 무너뜨렸고, 루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서 경솔하게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Inst.* 3.10.6). 이러한 점들에서 루터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칼빈은 루터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루터는 당시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직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으나, 칼빈은 사회 질서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하였고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목적이 원래의 창조 질서와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속에 포함된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²⁰⁾ 그러므로 칼빈의 개혁 활동은 제네바의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의 윤리 도덕까지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성경에서 소명은 합법적인 생활 방식을 의미하므로 죄악된 생활 방식과 관련된 직업은 비판받아야 한다(*Comm.* ICor. 7:20).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여부가 될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오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사합니다. 나는 최선을

18) 구스타프 빙글렌, 《루터의 소명론》, 맹용길 역(컨쿨디아사, 1975), pp. 19-20.

19)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p. 308.

20) *Comm.* Ps.11:4;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p. 138-140).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일이 공동체에 선하고 유익한지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일이 우리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용하지 못하고 공익에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개인적 이익에만 기여하는 어떤 직업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²¹⁾

이러한 개혁 활동은 사람들의 직업 활동이 현실에 충실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수단이 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아무리 낮고 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것이고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Inst. 3.10.6). 더 나아가 칼빈은 일반 은총에 입각한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임무를 인정하였다(Inst. 2.2.13-16).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루터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직업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이 ‘재단사가 다른 양복점으로 옮길 수 없다거나, 또 상인이 농업으로 직업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석하고 있다(Comm. ICor. 7:20). 칼빈은 직업을 바꿀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경솔하게 직업을 바꾸지 말라는 쪽에 무게는 두고 있다. 물론 청교도들도 직업을 경솔하게 바꾸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들에게 오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 직

21) Serm. Mt.3:11-12(quoted in A. Bié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icale de Calvin, p. 404).

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나타난다. 청교도들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적 자질과 경향, 사람을 이끌어 일정한 길을 가게 하는 외적인 환경, 부모, 후견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충고, 또한 본성, 교육, 혹은 천부적 은사 등을 들었다.²²⁾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1602년에 쓴 《소명론》 *A Treatise of the Vocation*에서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의 재능을 살펴서 그들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리처드 벅스터는 《기독교 교본》 *The Christian Directory*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²³⁾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자녀들의 직업은 부모와 달리 그들의 재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자신들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루터는 직업을 이웃 사랑으로 본 데 반해, 청교도들은 직업을 통한 노동의 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²⁴⁾

그러므로 청교도들에 이르면 근대적인 직업관과 함께 직업 선택의 개념이 좀더 분명하게 등장하였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적 소명 개념에 입각하여 성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교육시켜야 하겠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직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업 윤리를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되고 있으며, 직업의 귀천 의식이 강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현실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22) Leland, Ryken, *Worldly Saints: The Puritans as They Really Were*(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6), p. 28.

23) Richard M. Douglas, "Talent and Vocation in Humanist and Protestant," in *Action and Conviction in Early Modern Europe: Essays in Memory of E. H. Harbison*(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 296-7.

24)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p. 328.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문화를 창조하는 직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의 입장에서 경계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개인의 재산과 소비

칼빈은 개인 재산의 문제에서 당시의 리베르틴파와 재세례파를 비판하여 개인 재산권을 옹호하였다. 당시 재세례파들 가운데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세례파 가운데 모라비아 지방에 모여든 사람들은 야곱 후터(Jacob Hutter)의 지배 아래 후터 재산 공동체를 건설하였고, 이들은 1531-622년 사이에 100-300여명 씩 소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라고 보았다.²⁵⁾ 후터 공동체뿐만 아니라 1533년부터 윈스터에 들어간 재세례파들도 이 도시를 장악한 후에 재산의 공유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구약의 정치 제도를 모방하여 성직자가 지배하는 신정정치를 시행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성서 이외의 책을 불태우며 무력을 사용하다가 1535년에 독일 루터파 제후들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재세례파 뿐만 아니라 리베르틴파들도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였다. 리베르틴파들은 “성도들의 교제는 아무도 그 자신의 소유를 가지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의 급진적인 형태를 주장하였다.²⁶⁾ 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재산 공유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

25) Claus-Peter Clasen, *Anabaptism: A Social History, 1525-1618*(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1972), pp.243-4.

26) Shim Chang Sup, “An Evaluation of Calvin's Theological Position Against the Libertines”(Th. D.dissertation of Potchesfroom, 1987), pp. 242-243.

시켰다.

칼빈은 이러한 재세례파와 리베르틴파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재산의 개인 소유권을 옹호하였고 주장하였다. 재세례파와 리베르틴파들은 마태복음 19장 21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근거하여 재산공유를 주장하나, 칼빈은 이러한 구절들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사도행전의 모습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광신자들은 부를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유한 사람들을 구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칼빈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다. 그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인용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생명에 유업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가난을 지나치게 미화해서도 안 되고 부가 천국에 가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도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Comm. Gen.* 13:1).

칼빈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8계명을 해설하면서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여 개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다(*Inst.* 2.8.45).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Inst.* 3.10.2).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은 유용성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재산을 감사함으로 받아 향유할 수 있다.²⁷⁾ 칼빈의 재산에 대한 기본

27) Hans-Helmut Eßer, “Der Eigentumsbegriff Calvins angesichts der Einführung der neuen Geldwirtschaft,”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ed.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Sixteen Century Essays & Studies v.36) (Kirkville: Truman State University, 1988) p. 149.

적인 생각은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맡겨 잠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은 정직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와같이 재산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재산의 올바른 사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8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곤궁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Inst.* 2.8.46). 칼빈은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을 분리될 수 없는 나눔을 향한 의무와 함께 강조하였다.²⁸⁾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칼빈은 개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설교와 성경주석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부의 공공성과 함께 개인적인 사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물질을 소비할 때 사치와 낭비와 허영을 피하고 근검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칼빈은 소비에서 금욕주의자만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들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물질들을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들은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계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당시의 제네바의 절박한 경제적인 상황 하에서 검약법을 제정하여 사치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한 것에 근거하

28) W. Venter, “Calvin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Institutes”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86), p. 302.

여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고, 칼빈의 부의 공공성과 구제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그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칼빈의 입장은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는 재산의 공유 내지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리베르틴파와 재세례파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재산 공유는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것으로 보면서 성경은 재산의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그는 당시 제네바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서 부의 공공성과 구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입장은 부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되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재산권 사상은 내 재산은 내 것이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오늘날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 칼빈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부의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부의 공동체성을 입각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²⁹⁾

칼빈의 이러한 경제 사상의 배후에는 사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중세적이면서 성경적인 유기체 이론이 자리잡고 있다.³⁰⁾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칼빈의 사상이 중세와 연속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상은 성경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부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부의 개인적인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점에서 근대적인 성격도

29) 칼빈의 경제 사상 속에 자본주의적인 요소와 사회주의적인 요소의 관계에 대하여 이양호 교수는 개인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적 요소와 복음에 근거하여 사랑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요소가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의 관계로 공존해 있다고 하였다. (《칼빈: 생애와 사상》, p. 259).

30) Abel Athouguia Alves,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Sixteen Century Journal* vol.20(1989), p. 17.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재산에 대한 사상은 부의 소유의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그러나 부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한 사용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재산권 사상의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청교도들도 기본적으로 부와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고 부를 사회적인 공공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백스터는 “부가 있으면, 곤궁한 형제를 도울 수 있고 교회와 국가의 선행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퍼킨스는 돈을 써야 할 다섯 가지 용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고 둘째로 우리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 써야 한다 …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쓸 것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건강한 종교를 위해 써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보존을 위해 쓴다”고 하였다.³¹⁾ 이러한 점에서 재산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공공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는 칼빈의 입장은 청교도들에게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청교도들 또한 부의 개인적인 사용에서 중용을 강조하였다. 퍼킨스에 따르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알고 선한 양심으로 즐겨야 한다.”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사용하지만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고 역시 절제해야 한다. 퍼킨스는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부”를 사치라고 정의하고 “사치는 어린애의 손에 들어간 칼같아서 빼앗지 않으면 다치기 쉽다”고 했다.³²⁾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야 한다. 막스 베버는 청교도들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그 이전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전의 소비지향적이던 자본주의와 달리 청교도들은 저축하고 절약하여 근대적인 합리적 부의 축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31) Ryken, *Worldly Saints*, pp. 66-7.

32) *Ibid.*, p. 65.

물론 칼빈보다는 청교도들이 부의 획득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칼빈은 부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얻으라는 적극적인 권면의 자세를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청교도들은 부를 얻고 축적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윌리엄 아담스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봉사해야 할 곳이므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윌리엄 퍼킨즈는 마태복음 6장 19-20절을 설교하면서 “재물과 부를 소유하고 쌓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선용한 결과이다 … 보화를 모으고 쌓는 일을 그저 막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베버가 인용한 바와 같이 리처드 백스터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대 영혼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거절하고 재물을 덜 얻는 길을 택한다면 그대는 부름받은 목적 하나를 말살하는 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³³⁾ 이러한 부의 축적에 대한 청교도들의 태도의 변화는 로벗슨의 지적과 같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한 결과의 반영일 것이다.³⁴⁾

V. 노동과 임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합법적인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개념의 배후에는 노동관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중세에는 수도사들과 같은 정신적인 활동은 고귀하고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은 천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변화한 것은 생산활동은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33) *Ibid.*, p. 58.

34) Robertson, “A Critique of Max Weber and His School,” p. 83.

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달콤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Comm. Gen.2:15; 3:15*).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노동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노동도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타락된 노동이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필수적이다.³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노동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다시 수립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와같이 구원받은 사람의 회복된 입장에서 노동의 문제를 다루었다.

칼빈은 인간이 노동을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 보았으므로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른 자가 빵을 먹는 것을 저주하신다” (*Comm. II Thessalonians.3:10*). 게으름뱅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먹을 것을 축내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며, 그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존재들인 수도사들은 “잘 장식된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이라 비난하였다(*Comm. Mk.10:21*).

그렇지만 칼빈은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없는 실업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인간다워질 수 있으므로 실업은 철저히 없애 버려야 할 사회악이다. 당시 제네바는 박해를 피하여 몰려드는 개신교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었으므로 노동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빈원을 세웠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빈원 안에서 직물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피난민 기술자들에게서 생

35)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ans. Paul T. Fuhrmann (Richmond: John Knox Press, pp. 43-4.

산도구를 빼앗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칼빈은 그것을 금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저당물로 삼는 것을 금하신다 …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담보물을 취하는 사람은 잔인하다. 그것을 마치 굶어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빵을 빼앗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그 자체는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수단을 부정하는 단절된 것이 되고 만다”(Comm. Deut. 24:6). 그러므로 칼빈은 제네바로 몰려드는 피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동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임금에 대하여 주는 고용주나 받는 근로자나 모두가 임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행하는 것에는 전혀 공로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무상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Comm. Luke 17:17).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시든지 인간의 노동에 대하여 제공되는 임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동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용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제네바에 노동자들이 넘쳐나서 저임금으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 고용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에 근로자들도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목사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³⁶⁾

36)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p.141.

임금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것은 역시 청교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퍼킨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의 근본 목적은 … 사명으로 받은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좇아 일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한계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다.” 백스터도 일의 목적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 83).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 또는 사명을 선택하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사명을 선택하지 말라. 가장 많이 선을 행할 수 있고 가장 덜 죄를 짓는 쪽을 택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업을 통하여 받는 이익에 대하여 코튼 매더는 “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 그러나 이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87). 청교도들도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

Ⅶ. 상업과 이자 수취

칼빈이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가장 기여한 것은 바로 상업과 이자 수취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중세까지는 철저하게 농업 중심 사회였으므로, 언제나 상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농업은 근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지만 상업은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³⁷⁾ 반면에 칼빈은 상업에 대하여 훨

37) Hugh T. Kerr, ed.,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p.186.

신 더 진전된 이해를 하였다. 칼빈은 노동의 분업화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직업이 상업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상업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업일 뿐만 아니라, 물건의 유통을 통하여 인간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주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경건한 자의 생활은 정확하게 상업 활동과 비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교환하고 교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에게 맡겨진 직업, 소명,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아주 많은 종류의 상품으로 추정되는 다른 은사의 거래를 통해 교제를 실행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기대되는 용도와 목적은 인간들의 상호교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Comm. Mt.25:20). 상업 활동은 상품을 유통시켜 인간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므로 “인간이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인간 사회는 와해되고 만다”고 하였다(Comm. Isaiah. 23:17).³⁸⁾ 칼빈은 교역과 상업활동이 사회 안에서 인류의 보존을 위하여 차지하는 섭리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해낸 최초의 신학자였다. 이와같이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중요한 생업의 수단이었던 상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삶의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가져오게 하였다.

동시에 상업과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 수취였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는 처음에는 성직자에게만 이자 수취를 금지하였으나 9세기 이후에는 일반에게까지 확대시켰다.³⁹⁾ 당시까지 이자와 고리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대부받은 원금 이외에 모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이자 수취의 금지는 돈

38) 칼빈은 매점 매석과 부당한 상품 거래를 발생하는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그러한 행위들을 막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39) Robert M. Mitchell, “Calvin’s and Puritan’s View of the Protestant Ethic” (Th. M.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erica, 1979), p. 19.

은 돈을 낼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넬슨은 이미 “15세기 이탈리아에서의 경제적 편리들이 기독교 보편주의의 선전에서 한 힘으로써의 도덕철학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했다.⁴⁰⁾ 15세기 이후 유럽 사회에서 이자 수취 문제는 이론적인 금지 상황에서 도시와 상업과 원거리 무역의 발전의 결과로 널리 시행되고 있었으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합법화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루터도 1520년에 “한 사람이 한 굴덴이 어떻게 또 한 굴덴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고 1524년에 쓴 《무역과 고리에 대하여》 *On Trading and Usury*에서도 이자받는 것에 대하여 완강하여 반대하였다.⁴¹⁾ 이 무렵에 그는 이자받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인정하면서 5%로 이자율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제네바의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성경 본문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중세까지의 스콜라주의적인 입장을 깨뜨리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쓴 사키누스에게 보낸 1545년의 답변서와 신명기 주석, 시편 45편 주석, 에스겔 주석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혔다. 성경은 이자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이자 수취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취급이 달랐던 점에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당시의 일시적인 시민법이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칼빈은 고리대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부정적인 고리대금을 금하고 정당한 이자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

40) Benjamin Nelson, *The Idea of Usury: From Tribal Brotherhood to Universal Otherhoo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pp.18-19.

41) Martin Luther, *On Trading and Usury in Works of Martin Luther*, vol.4 (Philadelphia edi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p. 32.

주고 이자받는 것을 금한 반면에, 채권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여 이윤을 남긴 채무자와 이윤을 나누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⁴²⁾ 그러므로 칼빈은 이자받는 것에 대하여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이자받는 것을 정당화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나 이자받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제네바에서 은행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칼빈은 이자 수취를 허용함으로써 상공인들의 거래에 커다란 활력소를 부여하였다.

칼빈이 상업과 이자 수취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당시 유럽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던 진보적인 계층이던 상공인들은 칼빈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사상은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지역보다는 상공업이 발전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지역에서 활발하게 수용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사상은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들, 영국의 청교도 등에게 전파되어 갔고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가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활동과 이자 수취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이해는 당시에 새롭게 등장하여 발전하고 있던 경제 활동에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겠다.

VII. 경제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

칼빈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이 발전되어 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국가관 속에는 국가의 경제적인 역할이 들어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국가는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활동들을 막아야 한다. 상

42) 이은선, 《칼빈의 사회 경제사상》, pp. 62-65.

인들이 저울추와 매식 매점 등을 단속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부정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경계표나 종착역을 짓는 것과 유사하며, 거짓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유의해야 한다. 무엇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형량 단위와 도량 단위 그리고 화폐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어떤 신빙성이 없다면 인간들간의 교역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Serm. Deut. 19:14-5*).

국가는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칼빈은 과세는 국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세금은 국민들의 피라고 보았다. “군주는 그들의 총수입이 개인의 사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전체의 기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그것은 노골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낭비될 수 없으며 탈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민들의 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횡령하거나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혹한 잔혹 행위가 될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부과금과 징세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세금들이 바로 공공 복리의 후원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이유없이 일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는 것은 폭군의 강탈이다” (*Inst. IV. 20.13*) 그러므로 이 과세가 통치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되서는 안 되고 건전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공산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종파들과는 구별되나 스콜라주의자들과 다른 개혁자들의 견해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비엘러는 칼빈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기독교의 국가론은 거의 전적으로 사유 재산을 폐기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이론들과도 거리가 멀다. 사건과 상황의 변화 앞에서 늘 재고되는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균형에 의해서 모든 정치적인 독단주의를 제외하고 정의에 대한 명령들과 자유에 대한 명령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신앙과

순종의 표제를 엄격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일에 아주 유연하고 기동력있게 대처할 때 확증된다.”⁴³⁾

결론

칼빈과 청교도들의 경제 사상은 신학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칼빈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는 섭리 사상과 우리들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에 입각하여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 위에서 경제 사상을 전개하되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하였다.

그러하여 새로운 소명 의식과 노동관, 상업관과 이자 수취, 재물관을 제시하여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던 상인 계층들의 입지를 신학적으로 확보하여 주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측면들은 그대로 청교도들에게 계승되어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칼빈과 청교도들의 경제 사상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발생시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베버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⁴⁴⁾

칼빈의 경제 사상이 근대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자신의 이윤

43) Bié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p.336.

44) 이상화, “칼빈의 경제윤리” 《칼빈 신학 해설》(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424-5.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Oxford: Basil Blackwell, 1990), pp. 244-5. 맥그래드는 칼빈의 예정론이 불안을 야기시켜 세속적 활동주의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속적 활동주의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 하는 것은 시기마다 다르다고 지적하고, 영국 청교도들의 경우 16세기 전반기는 정치에 치중했으나, 청교도혁명 실패 이후 경제 활동이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추구만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신자본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는 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부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여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과 청교도들의 경제 사상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부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 사상은 자본주의를 향한 요소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칼빈과 청교도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체제의 모순점들과 한계들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 재산제를 인정하면서도 부의 공공성이 확립되도록 신자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며, 근검 절약하는 올바른 소비 정신도 함양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의 형평 분배를 촉진하는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비판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성경에 입각하여 재검토하여 새로운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앞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던 바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은 경제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